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군, '고흥' 급부상... '작전성' 통과

전남 9곳 작전성 추가 평가 결과 고흥만 '적정'

무안·해남과 더불어 3대 후보군 포함 유력시

공군-지자체 협의·주민 반응·우주센터 등 관건

광주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국토 최남단 전남 고흥이 급부상하고 있다.

드넓은 간척지 등 입지 여건이 뛰어난 곳으로, 최근 국방부의 작전성 검토를 통과하면서 무안·해남과 더불어 3대 후보지로 유력시되고 있다.

최종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황금어장 훼손 등을 우려한 주민 반대와 함께 공군 등 국방부 내부 조율작업도 해결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방부 군공항이전추진단 등에 따르면 국방부가 최근 군공항 기본 요건인 1150만㎡(350만평) 이상 부지를 갖춘 전남지역 9곳을 대상으로 군 작전수행 가능성 여부, 즉 '작전성' 평가를 진행한 결과, 고흥만 유일하게 통과했

다. 나머지 8곳은 부지면적을 뽀크고 작은 제약조건이 많아 모두 탈락했다.

국방부는 공군과 협의해 전투기 이착륙 시 물레이션과 비행 데이터 분석, 주변 임야와 논·밭 등 장애요소를 면밀히 검토한 뒤 고흥을 이전후보군에 추가할 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2016년 8월 광주 군공항 이전 타당성 평가결과 최종 '적정' 판정이 나온 뒤 이듬해부터 단계적 검토를 거쳐 무안과 해남을 양대 후보지로 정한 뒤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협의를 거쳐왔으나 주민 반대 등으로 수년째 답보상태에 놓이자 제3의 후보지를 모색해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애초 12개 후보지 중 일찌

감치 후보군에서 탈락한 신안을 제외한 나머지 9곳을 모두 테이블 위에 놓고 작전성 검토를 해봤더니, 고흥 한 곳만 적절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지자체와의 사전 조율 등이 필요한 만큼 최종 후보지로 채택될 지, 드림(탈락)될지는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흥지역에 항공센터와 경비행장이 이미 갖춰져 있고, 내년까지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이 조성 중인 점도 중요 고려사항으로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아직 국방부로부터 구체적인 통보나 양자 조율 등의 논의는 없었다"며 "예비후보지가 선정된 건 아니고 검토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고흥이 후보군에 최종 포함되기까지는 몇 가지 난관이 예상된다. 정부부처 간, 기관 간 협의가 이뤄져야 하고, 인근 나로우주센터와의 기능적 조율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 협의 과정에서 생업을 이유로 반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최종 후보군에 들기까지, 이후 주민 동의를 얻기까지 상당한 행정적 부담도 예상된다.

한편 국방부 군공항 이전평가단이 2016년 8



고흥 녹동항 전경

월 광주 군공항 이전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릴 당시 이전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송정리 군공항은 새 부지로 옮겨지고, 그 자리에 2025년까지 신도시가 조성될 예정이었다. 이전 완료 시점도 2028년으로 돼 있어 공사 기간 등을 넉넉히 감안하면 수년 내 착공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여러 난관으로 벽에 부딪힌 상

태다.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은 총사업비 5조7480억원으로, 이전 군공항 건설에 4조791억원, 이전 주변지역 지원에 4508억원을 지원하고, 종전부지 개발에 8356억원, 자본비용에 3825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골자로 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 정선용 기자

'이용섭 시장 시·도통합론'에 광주정치권 '부글부글' ... 성사 동력은?

국회의원 잇단 질타 비판 "이런 중차대한 일, 이런 방식 던지는 것 공감할 수 없어"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 지역 경제단체장들이 14일 오전 광주 북구 말바우 시장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만나 온누리 상품권으로 상품을 구입하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의 제안한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해 광주지역 정치권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정치권의 잇단 반발기류에 이 시장의 제안이 동력을 얻으리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광주지역 정가에 따르면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이 이 시장에 제안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직격탄을 날린데 이어, 상당수 지역 국회의원들이 "뜬금없는 주장"이라며 쓴소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장의 제안에 대해 광주지역 A 국회의원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등의 차원에서 시·도통합에 공감대가 있을 수 있으나 이런 중차대한 일을 이런 방식으로 던지는 것은 공감할 수 없다"면서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뜬금 없는 주장이다"

고 말했다.

B 국회의원 역시 "광주와 전남 통합 의제는 대의적으로 맞을 수 있다. 특히 국가그랜드 디자인 차원에서 논의될 일이다"면서도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갑자기 툭 던지는 것은 어설피고 생뚱맞다"고 말했다.

앞서 이형석 국회의원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함께 힘을 모아 추진해야 하는 굵직한 지역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행정구역 통합 제안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먼저 상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순리에 맞다"고 밝힌바 있다.

이들 의원의 주장에 대해 지역 국회의원 상당수가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광주시의회 역시 이 시장의 갑작스런 주장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하는 의원들이 상당했다.

특히 시의회 의장 조차도 이 시장의 갑작

제안에 대해 놀라움과 함께, 전혀 협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서운함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C 광주시의회는 "시민의 대의 기관인 광주시의회에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런 중대한 일을 제안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다"면서 "시도통합의 사안이 시의회 동의가 필수적인데,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동의가 이뤄질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시의회는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대책을 논의중이다.

지역 정치권의 잇단 비판으로 이 시장의 제안이 제안수준으로 머무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관련 이 시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이번 시도통합 제안은 즉흥적이 아니고 정치적 계산도 없다. 광주전남의 상생과 동반성장, 다음 세대에게 풍요로운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 행정통합 논의가 더 늦기 전에 시작되어야 한다는 평소 소신을 얘기한 것이다"면서 "시 공무원들도 생산적인 토론과 의견수렴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경 기자

문화관광의 중심지
영암

영암군
YEONGAM-GUN

건강과 웰빙의 대표인식!

영암우수 농·특산물

청정지역 황토에서 충분한 일조량과 맥반석 물로 재배된 영암농특산물은 친환경농특산물로 품질과 맛이 월등합니다